

T V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내인생의 단비)
9 40 이슈토크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이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뉴스 4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40 관찰카메라 24시간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재)	50 지구촌 뉴스		40 SBS 뉴스
11 50 채널A 뉴스	00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기념식 45 아름다운 사람(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월화드라마 (빅)(재)	00 MBC여성토크 (워드)	00 SBS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구름빵 40 여자 그 남자 스페셜	00 KBS 뉴스 12		00 MBC 뉴스 10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50 뉴스 쇼 A타임 1~2부	00 KBS 걸작선 (로맨스타운)(재)		00 통일전망대 40 영산대큐 퍼미(재) 55 제19대 국회 개원식	30 얼마랑 아베랑 지구한반위
2	00 중계방송 제19대 국회 개원식 45 아름다운 사람(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00 유로 2012 축구 결승 (스페인:이탈리아)(재)	45 지구촌 리포(재)	00 중계방송 제19대 국회 개원식 50 SBS 뉴스
3 50 세계를 품는 한국기업 신짜오 베트남	10 KBS 스페셜(재)		05 MBC 네트워크 특선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갈매기도시-부산)	00 구름빵(재) 30 TV유치원	00 뽀뽀맨 아이즈아 30 로또 알포	00 동화속 과학탐험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알록달록 종이마을 30 맛있는 퀴즈쇼! 행운의 식탁	00 MBC특별생방송 (고급입니다 작은 도서관)	00 SBS 뉴스파라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00 오리비전 30 이은결 김원준의 TOP 매직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홍 1~2부	00 MBC뉴스 10 생방송 월화수목 50 영코트 특집다큐멘터리 (한국외 1부 박길리)	
7 40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우기	45 일일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45 일일시트콤 (스텐바이)	20 일일드라마 (그레도 당신)
8 50 월화 미니시리즈 (굿바이 마늘)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0 스타 인생극장 50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그대없이 못살아)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55 월화드라마 (빅)	45 MBC 스포츠 뉴스 55 MBC 청사특별기획 (빛과 그림자)	55 월화 드라마 (추적자)
10 00 뉴스A	00 기요무대			
11 00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00 KBS 뉴스라인 40 베이스볼 매거진 야호(野虎)	05 대국민 토크쇼 (인생야호)	15 특집다큐멘터리 (나의 아버지 손양원)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박종진의 '쾌도난마' ①:10 꿈의제국 아주 특별한 여행(재)	25 KBS 뉴스 35 KBS특선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100대민족문화상징 스페셜 25 MBC 뉴스24 3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라인 45 영명의 도전 내일은 챔피언

‘진정성이 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SBS '추적자' 평범한 소시민 대변한 백홍석 役 손현주



“아닙니다. 내가 보면서 아픈데 시청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죄송하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6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손현주(47)도 결말은 모른다고 했다. 대본이 안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워낙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만큼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하나의 재미가, 계란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재미가 무치면 집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풀리지 않을까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신드롬을 일으키는 SBS 월화극 '추적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복수를 위해 나선 백홍석을 연기하는 손현주를 30일 인터뷰했다.

그는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드라마는 처음”이라며 “답답하지만 그래도 한 발씩 진실을 향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후반으로 갈수록 대본이 늦어지고 디테일이 다소 떨어지긴 해도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야기의 완성도도 지켜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디테일'이란, 백홍석의 잦은 '탈출'을 말한다. 너무 허술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망가는 것. 하지만 '추적자'가

전반적으로 치밀한 스토리를 자랑하는 까닭에 이는 '육에 티' 정도로 옹서(?)되는 분위기가.

법정살인 직후부터 도망가 신세가 된 백홍석은 늘 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달아난다.

“처음에는 좀 버거웠는데 하도 뛰다 보니 이젠 뛰어다닐만해요. 물론 관질이 아프죠. 하지만 안 아프고요. 아프다고 했다가 나이가 많다고 핀잔 들을까 봐 내색 안해요. 하지만 이젠 총까지 맞은 상대라 도망 다닐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백홍석이 평범한 소시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했다. 손현주는 '추적자' 신드롬에 대해 “진정한 진정성이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관타지나 '트랜스퍼'류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추적자'는 현실을 그대로 들고와 그대로 벗겨놓았잖아요. 간만에 보는 정상적인, 현실적인 내용의 드라마죠. 그러다 보니 모든 배우가 진정성을 담아 연기하고 있고 그게 8박자, 9박자, 10박자까지 앙상블을 이루죠.”

'추적자'에는 소위 말하는 '스타'가 없다. 대신 손현주를 중심으로 박근형, 김성중, 김성령, 류승수, 강신일 등 연기와 배우가 준비하게 포진해있다.

“이 작품을 통해 물론, 숨어 있는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하나씩 드러나길 바랍니다. 진주 같은 배우들이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

라는 거죠. 스타의 주변인물로서가 아니라 우리 배우 모두가 그 자체의 힘으로 기용되는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추적자'는 이제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는 진실이 밝혀질 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라.

“백홍석은 수정이의 아빠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로지 수정이의 죽음과 아내 미연이의 사고사뿐이죠. 그것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백홍석 안에 정치가 어디 있고 권력이 어디 있었어요. 끝까지 가는 거죠.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무리없이 풀어가느냐가 남은 숙제이자 관건이겠죠.”

연협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일(음 5월 13일 甲子)

子 36년생 무언중에 뜻이 통하리라. 48년생 유용한 물건이 들어오게 된다. 60년생 처벌 없이 대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반가운 이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게 되리라. 84년생 크게 칭찬 들을 일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47, 17	午 42년생 복은 근면한 속에서 피어나느니라. 54년생 상대가 의중을 보일 때 수송하라. 66년생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78년생 집착을 떨쳐버리는 시기가 늦어지면 급 추락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86, 27
丑 37년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 49년생 감추려는 이가 있을 것이다. 61년생 본디의 모양새 그대로가 좋다. 73년생 적당했을 때 끝내도록 하라. 85년생 총체적 수단을 동원한 방어력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31, 61	未 43년생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이 스산한 기운을 물고 올 것이다. 55년생 진솔하게 해주는 충고이니 따르자. 67년생 온갖 수단을 동원한 유혹이 있을 수다. 79년생 닦하기에 앞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자. 행운의 숫자: 77, 35
寅 38년생 끝없이 너른 바다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50년생 상대의 명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시험 삼아서 미리 검사해 보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자기만의 타성의 틀을 깨고 나와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01, 52	申 44년생 추억의 향연이 펼쳐지리라. 56년생 마음이 차분하지 않으면 내용 파악이 어려우리라. 68년생 행인이 번다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겠다. 80년생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15, 69
卯 39년생 양미간을 잔뜩 찌푸릴 일이 생기겠다. 51년생 힘들거든 휴식을 취하되 포기하지는 말라. 63년생 그럴듯한 명분에 혹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75년생 미워왔던 일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 행운의 숫자: 81, 20	酉 45년생 잘못이 보이더라도 계도하는 차원이 좋다. 57년생 큰 번수가 작용하게 될 것이니 여유를 뒤라. 69년생 뒷사람에게 울린 것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81년생 공허한 명분보다 알찬 실속을 쟁겨라. 행운의 숫자: 58, 48
辰 40년생 심시일반으로 추렴하면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52년생 과민 반응을 보이면 다가오던 기회마저 사라진다. 64년생 형식과 위선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76년생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자. 행운의 숫자: 43, 55	戌 46년생 마음의 번뇌를 날려 버리자. 58년생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70년생 상대와 뜻이 엇갈리는 것은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니라. 82년생 편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65, 11
巳 41년생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덕. 53년생 팔방으로 수소문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65년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파악할 수 있겠다. 77년생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73, 08	亥 47년생 쇠약한 기운이 작용하니 앞날이 요원할 뿐이다. 59년생 제대로 고쳐보면 좋아질 것이다. 71년생 상대가 우월하기는 하지만 절대 감자는 아니니라. 83년생 웃어른께 물어봐 답을 구하자. 행운의 숫자: 39, 2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6:00 헬스투데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7:00 2012년 2분기 특별기획	10:50 " (송정석의 생물1)	07:00 2012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15:20 EBS 초등 내용 나눔
06:30 아름다운 소원	(김미경의 평범한 재료로 남부럽지 않은 요리만들기)	(정승제의 고1수학)(상)	11:40 " (송원희의 지구과학1)	07:30 EBS 생생영어	15:50 " (국어 4-1)
07:00 어린이왕자	11:20 부모	(이남승의 사회)	12: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08:00 조리기능사 시험대비강좌	16:20 " (국어 5-1)
07:30 이기중통 버디	(온가족이 함께하는 신채놀이 1부)	(영문법 즐겨찾기)	13:00 2012 수능특강	08:3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강좌	16:50 " (국어 6-1)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02:30 2012 내신 6급 (0미지의 수학)(상)	12:10 역사특강	09:10 EBS TV 중1	(문학)
08:00 덩동영 유치원 1~3	12:10 역사특강	03:20 2012 포스 (과정원의 수학 1)	13:00 세계대미기행 (기억의 저편, 타이완 1부)	09:50 " (비문학)	17:20 초등개념잡기 (수학)
08:30 부릉부릉 브루마즈	12:10 역사특강	04:10 " (김규호의 미적분과 통계기초)	13:40 EBS 다큐 프라임 (놀이의 반란 제1부 놀이, 아이의 분노)	10:30 EBS TV 중2	(과학)
08:45 숲 속 친구 피파틀라	13:00 세계대미기행 (기억의 저편, 타이완 1부)	05:00 " (이은주의 적분과 통계)	13:40 EBS 다큐 프라임 (놀이의 반란 제1부 놀이, 아이의 분노)	11:10 " (비문학)	(국어)
09:00 방구대장 뽀뽀이	13:40 EBS 다큐 프라임 (놀이의 반란 제1부 놀이, 아이의 분노)	05:50 " (김경환의 기하와 벡터)	14:30 함께하는 한국어	11:50 EBS TV 중3	(문학)
09:10 뽀로로와 노래해요	14:30 함께하는 한국어	06:40 2012 탐스런 (강봉균의 한국지리)	15:00 천하무적 한자 900	12:30 " (비문학)	20:40 EBS TV 중2
09:15 뛰뛰भाग 울리	15:00 천하무적 한자 900	07:30 " (한종철의 생명과학 1)		13:10 이이이 한국사	21:20 EBS TV 중3
09:30 뛰뛰भाग 울리		08:20 2012 2분기 특별기획		13:50 이이이 수학사	22:00 " (비문학)(재)
09:45 삼글방글 피지		09:10 " (이남승의 사회(지리))		14:30 EBS 클럽뱅크	22:40 중3 퍼펙트체커업 (수학 3-1)
10:00 달려졌어요		10:00 2012 수능특강 (강봉균의 한국지리)		14:50 한자지식 도로운	23:20 중1 " (수학 1-1)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I'll check them for you 자네를 대신해서 내가 점검해 줄게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봄 춘, 올래, 아닐 불, 님을 사, 봄 춘
A : I think I may have some mistakes on my math problems. B : I'll check them for you if you would like. A : Thanks, I'd appreciate it. B : You're welcome. It's my pleasure.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은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원제(元帝)의 공녀였던 왕소군(王昭君)을 두고 지은 시에 나오는 글귀다. 한나라 원제가 걸맞지만 공경해오는 흥노를 달래기 위해 공녀를 주기로 했다. 궁중 화가인 모연수에게 공녀들의 초상화를 그려오게 했는데, 공녀들은 황제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모연수에게 뇌물을 주며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왕소군은 자신의 미모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모연수를 찾지 않았다. 그런 왕소군을 패심하게 여긴 모연수는 왕소군을 가장 못나게 그렸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원제는 못난 왕소군의 초상화를 보고 흥노에게 왕소군을 보내기로 했다. 오랑개 땅으로 떠나는 왕소군의 실물을 본 원제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 훗날 동방규는 황량한 북녘땅에서의 그녀의 불운한 정경을 시로 읊었다. '이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 제가 적은 영어를 점검해 줄 수 있습니까? = Would you please check up my English? (△) = Would you please check my English (for mistakes)? (○) * make a mistake = 실수를 저지르다	[출전] <한서(漢書)>의 <동방규의 시 소군원(昭君怨)>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쑹구위
土生土长 tǔshēng tǔzhǎng 토박이
'土生土长 - 현지(土)에서 낳아(生) 현지(土)에서 성장한(长) 토박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전통 농경사회에서는 태어난 장소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보통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는거구요. 고향을 떠나 외지로 나감은 몇몇지 못한 일이 있었기에 토박이 딱지를 댄다고 생각되었지요. '토박이'라는 말속에는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아무런 죄없이 살아온 념새도 배어 있습니다. 他是光州土生土长的当地人。 그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인이다.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오우 니혼고
最近の冬は昔より寒くないですからね。 지금의 겨울은 옛날보다 춥지 않으니깐요
A : 冬でも氷柱を見かけなくなりましたね。 B : ええ、最近の冬は昔より寒くないですからね。 A : 昔は氷柱を食べたり氷柱で遊んだりしたものですけどね。 B : そうですね。最近氷柱を見たことのない子供たちが多くおもしろくないですね。
A : 겨울인데도 고드름을 좀처럼 보기 힘들네요. B : 네, 지금의 겨울은 옛날보다 춥지 않으니깐요. A : 옛날에는 고드름을 먹기도 하고 고드름으로 놀기도 하고 했었는데 말이예요. B : 맞아요. 최근에 고드름을 본적이 없는 어린이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단어정리] 遊(あそぶ) 놀다 最近(さいきん) 최근 ~かもしれない ~일지도 모른다 ~たことがない ~한 적이 없다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